

# 올해는 반드시...조선대, 글로벌대학30 선정 총력

##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킥오프 회의 교육혁신·특성화 분야 운영 전략 등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8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은 글로벌대학30 킥오프(kick-off)회의와 글로벌대학30 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글로벌(Global, Glov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순천대 등 전국 10개 대학을 글로벌 대학에 선정하는데 이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는 올해 다시 한 번 도전하기 위해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는 등의 재정비 시간을 갖고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는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소개와 향후 활동방향이 발표됐으며,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소멸시대와 대학혁신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글로벌대학30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내용, 교육 혁신 전략, 특성화 분야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은 대학 내부 공모와 추천을 받아 교직원 52명으로 구성했다. 전제열 부총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부단장에는 박현주 교수가, 이강희 팀장이 실무팀장을 맡았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대학과 지역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 거점 최대 민립대학 CSU 도시캠퍼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주권에서는 대학의 AI(인공지능) 응용계열을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하는 방안과 예·체능 계열을 젊음과 문화의 예술적 향기가 넘치는 충장로 부활에 접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성계열은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

성화, 전기 및 에너지, 소재 관련계열은 에너지 벨리와 연계 시도한다. 기계 관련 계열은 하남산단 금형산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완도군에서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메카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김춘성 총장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공생발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꼭 선정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한곳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성화, 전기 및 에너지, 소재 관련계열은 에너지 벨리와 연계 시도한다. 기계 관련 계열은 하남산단 금형산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완도군에서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메카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김춘성 총장은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공생발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꼭 선정돼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한곳에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춘성 조선대 총장이 글로벌대학30 출범 회의에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대학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동신대-나주고, 청소년 창의융합 증진 협력

지역 인재육성 업무협약...전문인력·교육 프로그램 지원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나주고등학교(교장 강대창)와 창의적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두 기관은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융합 사고력 증진에 힘을 모은다. 동신대는 대학 시설과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주지역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고 미래 유망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동신대 재학생과 나주지역 학생은 온·오프라인 멘토·멘티, 교육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동신대와 나주고는 현재 나주고 뿐만 아니라 나주지역 일반 고교 학생들을 위해 2년 전부터 인체 구조와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방학에는 동신대 인프

라를 활용한 겨울방학 프로그램과 철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선택을 반영한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나주고 강대창 교장은 "동신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나주가 교육 특구가 된다면 이번 협약이 대학과 고교 간 연계의 모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중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공영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증진과 진로 지도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사립대 경영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

'대학 ESG기반 행정 프로세스 개선' 수상...사례집 발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최근 '2023년 사립대학 경영개선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진>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경영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대학의 모범 사례 발굴 및 자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광주대학교는 재정관리 및 개선 분야에 '대학

ESG기반 행정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응모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동광대는 지난달 베트남 응에 안 대학의 경영개선에 사례를 활용·도입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며, 사립대학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대학교는 지난 9월 중장기 발전계획 'LIGHT 2028'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정신 대학'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교육혁신, 학생지원,



건강경영, 지역상생, 미래기술 육성 등 5대 전략 방향을 수립, 대학 운영에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강대,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와 MOU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교류...한베산업기술대 개교기념식 참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베트남 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동강대는 최근 국제교류원장 허숙 교수와 산학협력단장 김명수 교수가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를 방문하고 유학 추진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는 1996년 개교해 응에 안 성의 관광, 호텔 경영, 상업 경제학, 서비스 비즈니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는 조만간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자들이 동강대를 방문하고 탄탄한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강대는 지난달 베트남 응에 안 성에 위치한 한베산업기술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llege) 25주년 개교기념식에도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베산업기술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1998년에 설립한 기술 교육기관으로 재학생은 3천여 명이다. 한베산업기술대학교는 지난해 10월 호반담 총장을 비롯한 5명이 동강대를 직접 찾아 유학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허숙 국제교류원장은 "베트남 현지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 뿐 아니라 교직원 교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